

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

(대표발의 : 이동한 의원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2. 9. 27.

발 의 자: 이동한·이길호·신경원·김귀근·
신금자·이우천·이훈미·박상현·
이혜승 (9명)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 내 투기 과열이 이미 식었으나 정부는 군포시를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하여 군포시민의 정신적·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.

2. 주요내용

-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군포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음.
- 2022년 9월 현재 군포시 내 투기 과열이 이미 식었으나 정부는 군포시를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해 군포시민의 정신적·경제적 피해는 확대되고 있음.
- 이에 27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정부에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.

3. 이송처: 청와대, 국회(국토교통위원회),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 등

4. 붙임 : 결의안 1부

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

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군포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.

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GTX-C 노선에 금정역이 확정되어 생긴 기대효과로 군포시의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10월 현재 하락으로 반전되었다.

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군포시의 주택 거래 침체는 가속화되었다.

또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이 군포시의 재건축·재개발·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군포시민의 정신적·경제적 피해는 확대되고 있고 군포시의 발전은 저해되고 있다.

요컨대,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군포시 전 지역 내 투기 우려가 사라졌으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변하여 군포시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.

이에 27만 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의 정신적·경제적 피해 방지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.

하나, 정부는 투기 과열 식었으나 대출 규제 강화하고 주택 거래 위축하는
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하나, 정부는 군포시의 발전을 저해하고, 군포시민의 피해만 확대시키는
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2022년 10월 4일

군포시의회 의원 일동